

지역작가들 작품, 온라인 미술관에 뒀다

광주·전남 지역 작가들 작품이 온라인 미술관에 뒀다. 또 '구글 미술관'에서 빈센트 반 고흐 등 세계적 거장들 작품과 함께 한 자리에서 관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새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4일 온라인 미술관(www.koreanartistproject.com)을 통해 역광있는 국내 작가들 해외에 소개하는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KAP·Korean Artist Project) 2차 선정 작가로 김주연·진시영씨 등 21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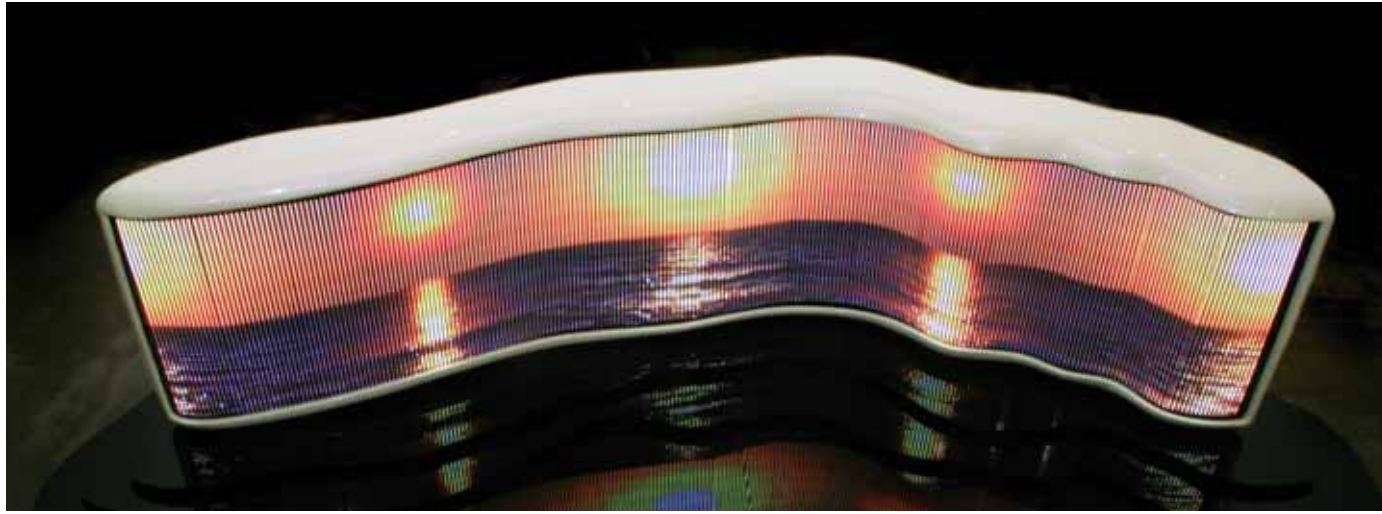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2013년까지 우수한 국내 작가들 발굴, 세계 무대에 적극 소개하면서 국내 현대미술의 국제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시회를 열기도 한 영화배우 하정우가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중이다.

올해 사립미술관협회 소속 큐레이터들이 선정한 작가로는 무등현대미술관이 추천한 김주연씨, 우재미술관의 진시영씨, 고희남포미술관의 이길래씨 등 21명이 뽑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진행하는 '올해의 작가상'에 올라있는 이수경씨도 선정됐다.

김주연씨는 올해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로 비엔날레 기간 광주 무각사에서 소금을 소재로 한 '기억의지우기 III'이라는 작품을 내놓고 관람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진시영씨는 5일부터 열리는 '페스티벌 오! 광주-미디어아트 2012' 행사 총감독으로, '흐름(flow)이라는 3분짜리 영상 작품을 도청·전일빌딩의 '미디어 캔버스'에 선을 보일 계획이다.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작가들의 대표 작품들을 실제 전시장을 찾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집, 커피전문점에 앉아 휴대전화나 노트북, 아이패드 등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진시영 작 'Wave'

사립미술관협,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 21명 선정

광주·전남에선 김주연·진시영·이길래씨

'구글 미술관'서 거장들 작품과 한 자리에

단순히 이미지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미술관을 가상현실 속에서 걸어다니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처럼 꾸며진데다, 9월 중순부터는 '구글 아트 프로젝트'에 포함돼 전 세계 거장들의 명화들과 나란히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구글 아트 프로젝트는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를 미술관까지 확장시킨 것으로, 전 세계 40개국 151개 박물관·미술관 내부를 실제 가서 보는 것처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사립미술관협회는 가상전시관 이외에도 '디지털 아카이브', '작가 인터뷰' 등의 코너를 마련, 작가와 작품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

고 작가들의 전시 소식을 담은 '타임라인 캘린더', 국내의 전시 소식을 포함한 'What's On' 등을 통해 전 세계 미술계 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립미술관협회 관계자는 "해외 미술관 큐레이터 및 전문가와의 적극적 협의를 거쳐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통한 국내 작가의 세계 무대 진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립미술관협회는 5일 광주시 동구의 재미술관에서 전국 사립미술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립미술관 승계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주연 작 'Metamorphosis'

이 작품의 감상 포인트는...

광주비엔날레 도슨트 32명 최종 리허설

관람객들에게 작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 도와

"마크 브래드포드는 어머니가 미술사 예요. 엄마가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주는 데 매력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게 작가의 길로 이끈 것은 아닌가 싶어요."

4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흑인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의 신작 '1872 사우스', '1910 웨스트', '2871 이스트'에 대한 작품 설명을 맡은 도슨트(docent) 조기쁨(22·뉴욕대 2년)씨는 상기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도슨트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작품 등을 소개하는 안내인이자 해설가. 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지난 6월부터 80시간에 걸쳐 미술 이론과 현장 학습 등을 받은 32명의 도슨트들에 대한 최종 리허설이 진행됐다.

전시 기간 이들은 깨반 베스트에 재킷을 입고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 전시 해설을 맡게 된다.

마지막 점검인데다, 도슨트 경력이 처음인 경우도 적지 않아 얼굴엔 긴장감이 묻어났고 관람객들로 '위장'한 사람들이 오갈 때면 작품 앞에서 머릿속에 담아놓았던 작품 설명을 열심히 떠올리다가도 옷매무새를 고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작품이 완성돼 전시돼 있다는 점에서 비엔날레 본 전시관의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유진(22·전남대 일문과 4)씨는 첸 사오시옹, 김홍석, 오자와 초요시 등 일본·중국·한국작가로 구성된 '시정맨'의 작품 '웰컴 투 시정·서경 이민국'이라는 작품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입국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라며 재미있게 설명을 해나갔다.

유일한 남자 도슨트인 공용배(25·전

남대 철학과 4년)씨는 지역 작가인 최미연의 작품 설명을 끝낸 뒤 머리를 긁적였다. "전공을 살려 예술 세계와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버려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일시적 만남들'이라는 주제로 전시관을 채운 작품들 중 영국 작가 하룬 미르자의 '타카 타카'(Taka Tak)이라는 작품을 설명하는 도슨트는 "음식 만들 때 요리사가 조리하는 소리 같죠?"라며 "탄 테일을 위에서 들어가는 조각과 번쩍이는 코란 상사 위에 음악을 만드는 요리사의 이미지, 조리는 소리를 보고 듣는 게 감상 포인트"라고 알려졌다.

전시관 출입구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은 선영현씨는 "출입구로 위장한 게 토비야스 레베르거의 작품 특징"이라고 포인트를 짚었다. 그는 또 레베르거를 지난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작가로 소개하며 "갤러리에 카페를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제공하는 시도도 했었다"면서 "이번엔 한번도 전시 공간으로 쓰지 않았던 출입구에 작품을 만들고 그 안에 대한 공간들이 내놓은 작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제공한 다"고 했다.

나머지 도슨트들도 필리핀 작가 포크통이나덩이 손톱을 물들이는 작품을 만들고 인터뷰를 하면서 올랐던 얘기, 아공 쿠리니안완의 불편한 신발, 안규철 작가가 작품을 숨겨놓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걸려온 보험회사 전화 등의 에피소드 등도 곁들여 이해를 도왔다.

한편, 비엔날레 도슨트들의 복장은 이주여성들로 꾸러진 광주의 사회적 기업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에서 디자인해 제작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앞둔 4일 열린 최종 리허설에서 한 도슨트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익숙해서 더 즐거운 음악산책

6일 시립합창단 '해설 있는 교과서 음악회'

음악교과서에 실린 곡들을 만날 수 있는 음악회가 열린다.

광주시립합창단은 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를 연다.

이준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얼굴', '봄이 오면', '농부가' 등 우리 가곡과 민요, '오 솔레미오' '돌아오라 소렌토로'를 비롯한 각국의

민요와 가곡등 교과서에서 만난 곡들을 들려준다.

또 비제의 '카르멘' 중 '하바네라', '잔니 스키기'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 '에델바이스', '시스터 액트' 중 '오 해피 데이' 등을 선사한다.

티켓 가격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613-8245. /김미은기자 mekim@

10일 천원의 낭만 '영화음악 스토리'

천원의 낭만 9월 공연이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영화음악 스토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라현수씨의 지휘로 아시아시모니오케스트라가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공연 레퍼토리는 '여인의 향기' 중 'Por una Cabeza', '오즈의 마법사' 중 'Somewhere Over the Rainbow', '엽기적인 그

녀' 중 'Canon', '클래식' 중 'Fork Dance', '울드보이' 중 'The Last Waltz' 등이다.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편집한 영상도 함께 상영한다.

티켓 가격 1000원.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진행하는 천원의 행복은 매월 둘째주 월요일에 열린다.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평일 주중 점심식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휴플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